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유월 사역 소식 (2023년)

2023년 올해는 저희가 이곳 중앙아시아에서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같은 해인 올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키르기즈어로 된 신약주석 번역 및 출간 사역이 완료되어 완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의 중요 사역 중 하나인 한국어 사역이 올해로 13년째인데, 고려회관에서 진행되어온 사역으로서는 올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사역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달려온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며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에게도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오느라 무겁고 힘들기도 했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후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할까를 놓고 기도하며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사역

책을 번역하고 편집,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한다는 것은 사실 뛰어들기 어려운 사역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13권이나 되는 신약 주석 시리즈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2011년에 시작되었고, 저는 그때 안식년으로 신학연수 중이었습니다. 연수 중에 문서 사역에 대한 꿈을 꾸며 돌아왔는데, 이 팀의 리더를 통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처음 합류할 때만해도 초벌 번역만 해둔 상태라 13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모두 출간하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구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진행 되었습니다. 초벌 번역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서, 이후 감수 작업을 하면서 세밀하게 역번역을 통해 확인하며 로빈교수와 제가 한권씩 맡아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지인 번역자와 함께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며 감수작업을 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수작업이 끝나면 미국인 사역자가 이곳 현지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편집 작업을 해 주었고, 현지인 리더들을 통해 검토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소로 전달되어 마지막 편집과 점검, 그리고 인쇄와 배달, 분배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호주 사역자가 현지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을때에도 저는 이곳에 남아 현지에서 필요한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호주 사역자들도 온라인으로 디자인 편집과 감수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는 2권을 하였고, 로빈 교수가 9권,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한국인 사역자가 2권을 해주어서 올해로 13권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꿈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13권의 마지막 책이 인쇄소에서 완성되어 창고로 옮겨질 때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지난 6월에 호주 사역자인 로빈교수도 2주간 동안 현지를 방문하여 완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지인 번역팀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전체 번역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빈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여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성된 이 사역으로 인해 가벼워진 마음으로 현지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이 완간되었다고 이 사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귀한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되어 모든 팀들에게 큰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성된 13권의 키르기즈어 신약 주석 시리즈가 현지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잘 활용되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사역 (드림 아카데미)

2010년에 시작되어 고려회관에서 진행되어온 고려인자녀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은 공식적으로 올해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한국어 사역은 고려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한국어 교실로, 한국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며 가르치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13년째인데, 그동안 매년 80~120명의 학생들이 모집되어 총 1,200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15명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저희 기관을 통해 노동허가와 비자를 발급받으며 함께 한국어 사역을 하였고, 10명의 현지인 선생님들이 거쳐 가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한국에 취업으로 떠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로 진학하였고, 특별히 한

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도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약 10여명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문화회관의 2층을 전용 강의실로 사용하면서 고려인 협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도 큰 열매와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초기에는 매년 모집되는 80여명의 학생 전원이 고려인 자녀들이었지만, 2013년부터 10% ~ 20 %의 키르기즈인 학생들을 함께 모집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인들은 펜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후로 계속 한국으로 이주하는 재외 동포들에 대한 비자, 일자리 혜택 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난 해 가을과 겨울에 특히 많아졌고, 현지 고려인 학생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에 따른 일반 사설 학원도 생기고,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이 점점 더 활발하게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큰 변화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이 되었지만, 이번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한국어 사역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사역은 정리되지만, 그 관계와 열매로 연결된 현지인들과의 관계와 사역은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들에 대한 비자, 일자리 혜택 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난 해 가을과 겨울에 특히 많아졌고, 현지 고려인 학생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에 따른 일반 사설 학원도 생기고,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이 점점 더 활발하게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큰 변화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이 되었지만, 이번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한국어 사역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사역은 정리되지만, 그 관계와 열매로 연결된 현지인들과의 관계와 사역은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공동체

현지 공동체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곳 중앙아시아에 처음 도착해서 다니기 시작한 현지 공동체에서 2002년에 약 20여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당시 청년들이 지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자녀로 둔 중년 가정이 되어 공동체에서 중요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과 직업을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났던 청년들도 이번 20주년을 맞아 함께 초청되어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10여년 만의 만남이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신앙 공동체를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이들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사역자 부부와 리더들의 협력 사역으로 청소년 사역과 금요카페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인 리더십의 성장과 독립을 위해 저희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장해 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저희도 어떤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며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간사 & 김간사 드림